



동방 경제 포럼 소식

푸틴 대통령 연해주 미클루셴스키 주지사와 양자회담 시 포럼이 성공적일 것이란 확신 표현. 대화의 주요 의제는 연해주 지역의 신 성장 도구인 선도개발지역을 통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극동 헥타르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실현이었다. 《Primorsky.ru》

“극동연방대 EEF 참가자들 맞이할 최상의 준비 마침”-라고 극동연방대 니콜라예프 제1 총장이 전했다. 대학교 캠퍼스는 3440명의 참석자를 수용할 것이다. 이 외에도 대학교는 EEF 참가자를 위해 극동연방대의 아카데미 잠재력과 학술 잠재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Interfax》

중국 기술 대기업인 LeEco의 러시아 지사와 극동개발펀드간 신 무역 플랫폼 LeLive 구축에 대한 협정서 체결. 이 플랫폼은 높은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러시아 농업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창립, 진출, 유통, 판매되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포용하고 있다. 《«Prime»》

«매년 마다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의 방식은 극동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트랜짓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다.» -라며 소콜로프 교통부 장관이 기대를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논의의 성과는 극동의 운송인프라 발전에 기반이 될 것이며, 아시아 파트너와 경제적 연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안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Torgovo-promyshlennye vedomosti»》

동방경제포럼에서 유라시아 원석 센터 설립 프로젝트 발표 예정. 본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4억5천루블의 투자금이 필요. 원석 센터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부지에 인프라 클러스터로써 설립될 것이며 원석-다이아몬드 분야의 업체를 결합시킬 것이다: 원석 원료 채굴 및 판매 기업, 다이아몬드 및 보석 제품 생산업체, 보석 학 연구소, 은행, 보험사, 전문 운송업체 및 세관 사무소와 국가 관리 등을 위한 공공기관이 속한다. («DV-ROSS»)

«포럼은 극동을 경제 지역으로 통합시킬 효과적인 도구이다» - 라고 «로스콘그레스» 부사장 겸 동방경제포럼 디렉터 파블로프가 전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포럼의 특징은 극동지역의 잠재력을 참가자들에게 선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실현된 신 개발 메커니즘의 성과를 보여준 다는 점이다. («Dalnevostochny kapital»)

러시아연방관광청과 러시아연방 천연자원 환경부는 EEF 차원에서 러시아 농업 및 환경 관광 개발을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Glasnarod.ru)

Wellington Management International 미국 투자회사는 러시아 극동의 투자 잠재력을 연구하기 위해 EEF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에너지, 자동차제조업 분야와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를 노리는 중이다. («Tass»)

대외경제은행은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업분야 기업을 극동 산림업 클러스터와 통합시킬 제안을 개발 중이다. 이에 대한 협정서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될 예정이다. 은행이 극동 산림업 단지에 투자할 총 금액은 약 4백억 루블에 달할 것이라고 대외무역은행의 산림업 관리부 사장 빌리빈이 밝혔다. («Vedomosti»)

야쿠찌야 동방경제포럼에서 총 6480억 루블의 22건의 프로젝트 선보일 예정. 이에 대해 체킨 야쿠찌야 공화국 경제 부총리가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교통,조선,관광, 광석채굴, 농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이다. (Novosti@rambler.ru)

“동방경제포럼은 가정 먼저 극동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화의 장일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화의 장이다. 포럼의 중요성은 러시아 대통령이 이 곳에서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진행하고자 한 결정이 이를 강조한다”-라고 러시아연방산업무역부 만투롭 장관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간의 파트너쉽은 대외무역량 증대와 산업분야, IT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Minpromtorg.ru)

기상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동방경제포럼 개최 기간 소나기는 내리지 않을 것 이라고 프라임기드로메타 대표가 전했다. 포럼 위원회에 따르면 프라임기드로메타 전문가들이 포럼 참석자들을 위해 일기예보 사이트를 개발하여 forumvostok.primgidromet.ru에서 날씨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Ria “Novosti”)

극동의 뉴스

메드베데프 총리는 '아무르-힌가스키' 지역을 사회-경제 선도개발지역으로 선정하는 법령에 서명하였다.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선도개발지역에는 약 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2016-2025년까지 걷어질 세금은 112억 루블에 달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세제혜택은 80억 루블을 넘을 것이다. (Ria "Novosti")

우선적으로 아무르 주에 콩과 곡물 종자 공장 설립 예정. 개막식에는 러시아연방 농업부의 트카초프 장관이 참석할 것이다. 이러한 공장은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에서 유일한 공장이며 이곳에서는 수확한 곡물의 보관과 가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DV-Ross")